

“회원의 이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제과협회 강동·송파지회 원부재료사업 전개



▲ 노영대 지회장

대한제과협회 강동·송파지회(지회장 노영대)가 제과 재료 공급 사업 체제를 갖추므로써 회원에게 보다 많은 이익을 부여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회원에게 좀더 저렴한 가격에 원·부재료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에서 재료 사업을 시작한 강동·송파지회는 지난 8월 26일 경기도

하남시 감북동에 사무실 겸 재료 보관 창고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자본금 마련을 비롯해 재료상의 반발, 사업 성공을 위해 갖추어야 할 여러 준비 사항 등 어려움이 많았지만 보다 싼 가격에 재료를 공급받길 원하는 회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업 시작을 결정했습니다.”

노영대 지회장의 사업 취지 설명에서 나타나듯 강동·송파지회는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재료 사업 시작의 결실을 맺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사업에 필요한 1억여원의 자본금 마련에 지회 임원들이 자본을 기꺼이 출자했고, 박정희 사무국장 등 실무진들은 재료상들의 마진 및 재료 공급 루트, 취급 품목 리스트 파악 등 쉽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고 이루어 낸 성과이기 때문이다.

현재 강동·송파지회는 105평의 보관 창고에 밀가루, 설탕, 마가린 등 기본재료를 비롯해 각종 제과 부재료 등 300여종 1,000여 가지의 재료를 구비하고 있다. 수많은 재료들이 정연하게 정리된 보관 창고를 들여다보면 구하지 못하는 품목이 거의 없을 만큼 기존의 재료상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강동·송파지회는 이들 품목의 가격과 입·출고 현황을 컴퓨터로 관리하고 있으며 원활한 주문 및 배송 업무를 위해 4명의 직원을 총원하는 등 재료 공급 사업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8월 26일 본격적으로 재료 공급 사업

을 시작한 이래 한달여가 지난 지금 45군데의 거래 업소를 확보했습니다. 회원에 한해 기존 거래상보다 훨씬 싼 가격에 재료를 직접 배송하고 있어 앞으로 거래처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무 책임자인 박정희 사무국장은 앞으로 보다 저렴한 가격에 재료를 반입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또 더 싸게 반입한 재료라도 정해진 이윤만 남기고 할인 혜택을 추가로 제공하는 등 투명한 사업을 전개해 회원 이익이 신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동·송파지회의 재료 공급 사업은 영리 목적이 아닌 회원의 공익을 위한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 발생된 수익금으로 세미나를 활성화 해 기술 발전을 꾀하고 구인 구직 등 인력 관리를 대행하는 등 이익을 회원에게 다시 환원하는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어서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글/박종선〉

▼ 300여 품목을 싼값에 공급하기 위한 재료 보관 창고

